

## 21세기를 향한 가정과교육의 방향

### 이 기 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서 언

미래의 가정학연구의 새로운 모색과 계획을 세우려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 보완하여 좀 더 발전적인 학문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학은 변화하는 사회의 상황에 맞춰 가정학의 교육, 연구 목표방향이 변해야 될 것이다.

가정학 교육의 창시자 Ellen Swallow Richard역사상 위시한 초창기 가정학자들의 가정학에 대한 정의는 “가정학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인접한 물리적 환경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특성에 관한 원리, 조망,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특별히 둘 사이의 관계를 상호 연관시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정학의 사명도 다양화 되었고, 가정학의 정의도 세계 가정학회뿐이 아니고 각국에서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재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Quality of life”를 강조한 학문간의 상호작용과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등의 Multi-disciplinary Manner가 새로운 가정학 접근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제창된 인간생태학, 인간자원학, 생물과학등 가정학 명칭에서의 “탈경”운동은 독자적 학문 영역인 가정학에서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가정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어느 것에도 소속 안되는 독특한 통합실용과학으로서 학문의 대상은 ‘가정’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래 극도로 발전한 산업사회는 우리의 생활을 표준화, 규격화, 중앙 집권화, 전문화 등으로 세분화 시켰다.

그러나 Toffler는 ‘제3의 물결’에서 세계는 고도의 전문화 추세에서 다시 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시 공급자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사회조직이 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demassification”과 “prosumtion”의 두가지 요소를 지닌 새로운 문화 형태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은 인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양자간의 관계를 더욱 추구하는 학문이 되어야하며 국제적 시야에서 인류의 생활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Handerson은 “가정학은 미래지향적이거나 소비보다 생산의 측면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고, Fondsch는 미래의 가정학의 방향에 대해 전자화 물질이 닦쳐오는 새 사회에 대비하여 가정학 전공자의 세신과 재훈련을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I. 오늘의 가정학의 주요 문제

##### 1)가정학의 혼미

원래 가정학은 모든 학문계열과 무엇인가에나 관련이 있고 그의 일부를 채택함으로써 내용이 깊지 않은 차용(借用)과, 모방의 학문으로 되기 쉬운 위험도 있었다. 가정학이 성격상 고도의 실천적 응용과학이므로, 타학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인 가정학은 종합화하면 할수록 타의 학문분야와의 경계가 일층불명확하여진다. 또 한편 과학이 진보하면 할수록 학문의 새분야도 진전되고 그의 영역은 일층 좁아진다. 만일에 가정학이 통합과 새분화의 두 국면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학과 타학문의 구별은 무엇에서 찾아야 할 줄 모른다. 이 구분이 무슨 중요성이 있는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구분이 모호하고 애매하면 가정학은 유명무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학자가 말하고 있다. 이 구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학의 연구대상과 목적에서 구하여야 한다. 가정학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근년에 이 대상이 달라지고 확대되어 가정학의 흥미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본다.

## 2) 모호해지는 가정학 학문의 대상

대상이 없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학은 확실히 가정이라는 대상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발생이 있고 생존이 있고 생활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있다.

또 "가정"은 국가사회의 근원이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배양기이기도하다. 마치 인체의 기능이 각 세포자체의 조직의 건전 뿐만 아니라 정신 신경 Hormone 효소등의 통제 조절 없이는 건전하지 않다. 즉 가정의 건전은 사회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양자의 균형이 요구된다. 즉 가정생활의 향상은 인간행복에 필요한 것이며, 사회건전에 대한 공헌이 된다. 가정학의 독자성은 분명한 연구대상과 목적이 있으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에 근거하여 가정학도 독자적으로 발전내실화될 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학의 대상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시야를 두고 다시 주위로 시야를 넓히려는 생각과 우선 인간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그 속에서 사회 및 가정을 동시에 보는 포괄적인 생각도 있다. 가정학의 연구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정학의 명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 3) 가정학 명칭의 변경

명칭 변경의 효과에 대한 공개된 분석은 아직 없지만, 이와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지지를 증가시켰고 전공분야 내부와 외부에서의 새로운 교수들의 태도, 학부의 남학생 및 비 전공의 등록의 증가. 그

리고 학교의 행정가들의 증가된 참여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보고와 더불어 다른 변경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이며, 오히려 이층을 안바꾸고 내실을 기한 변형과 향상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소리도 있다.

새로운 명칭이 가정학 본질을 표시하는 가정학리적인 명칭이 아니라면, 가정학은 그 명칭이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흐름에 따라 그 때의 추세의 기복에 따라 자주 변하여 가는 학문 인지? 또 '탈가정'이라는 것이 본래 이 학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 말인가 하는 질문의 여운도 있다.

가정학이란, 가정에서 문제를 받아 그 해결을 가정으로 귀납시키는 학문이다. 마치 의학에 재고, 외과, 안과 등이 있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 및 발전에 있는 것과 같이 가정학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아동학과 가족관계의 전공으로 분류되고 앞으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떤 분류와 전공세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학문의 최종 목적은 가족의 행복 유지와 증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발전에 공헌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이 짧은 일생에 모든분야를 다 해결연구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그 중의 한 분야를 전공하고, 그 전공분야에서도 또 세분되어 작은 한 소재를 가지고 한평생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여야 한다.

## II. 미래학자들이 보는 변천하는 2000년대의 사회

### 1) 컴퓨터의 생활화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 변화는 결코 무질서하거나 두서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여러가지 변화가 결국 인간의 생활, 노동, 사고 방식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요컨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다름아닌 범세계적 혁명, 즉 역사상의 일대약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공학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는 가정의 중요한 표준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컴퓨터 정보의 보급은 마이크로컴퓨터의 도래로 더 한층높은 단계에 달하게 될 것이며, 정보를

응축시킨 작은 chip들이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들의 부품으로 이용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능, 감정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새로운 철학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인류의 발전은 지금 우리의 상상능력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일 것이다.

## 2) 우주산업의 발전

두번째 산업군은 우주산업이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체들은 '고도변경'이 미래고도기술혁명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로 '우주공장(space manufacturing)'이 나아가 우주도시의 건설이 현재 과학자, 기술자 및 고도기술기업체 간부들간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 NASA, 미국 에너지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들은 현재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달 등에 있는 외계광물의 화학적 처리방법, 우주주택의 설계 및 건설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보고서를 교환하고 있다.

## 3) 해양개발 기술의 발전

해양개발은 제3산업군의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수중농업은 어류양식이나 해조 채취를 통해 인류가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계 식량위기의 해결에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해양은 또한 구리, 아연, 주석, 은, 금, 인산염 광석 등 각종 광물의 보고이다. 여러가지 해양개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앞으로 물 속에 절반 또는 점부가 잠긴 '수중 부락(aquavillage)'과 해상공장의 건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 4) 유전공학의 가증성-인간의 윤리적 문제

네번째 산업군을 형성하게 될 생물학적 산업(유전자산업)이야말로 인류의 장래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생명의 생물학적인 Program인 DNA의 발견 이후 급속히 발달한 유전공학은 세계의 식량공급 증대를 위해, 또한 여러가지 불치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밖에도 생물학의 잠재적 응용 가능성은 무한하다.

동시에 이러한 유전공학의 가능성을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열등(inferior)인간은 제거하고 우수인종(super-race)을 번식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유전학적인 예측을 이용하여 '부적당한'아이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들이다.

## 5) 권력이동-국가의 붕괴

지금 우리는 일단의 세력들이 국민국가의 정치권력을 아래쪽으로, 국가내의 각지역이나 집단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노력을 목격하고 있다. 또 다른 세력들은 국가의 권력을 윗쪽으로, 초국가적 기관 및 단체에 이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수민족, 인종의 분류와 독립요구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서유럽의 EC통합을 들 수 있다.

세계가 지구촌화하고 새로운 부 창출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자신들의 생활을 형성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 이들 세력은 초국가적 정치참여권, 심지어 초국가적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적 기업들의 국제협의회와 같은 것이 형성되어 US, GATT,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겠다고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이 개별적인 국민국가로부터 새로운 지구촌 세력들에게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6) 지구촌의 권력이동

새로운 부 창출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제부터 세계는 빠른 자와 느린자로 나뉘어, 빠른 자에게로 권력이 이동될 것이다. 새로운 부 창출체제는 통신을 서로 즉각 주고 받으며, 거대한 지식의 흐름을 끊임없이 교환하는 시장, 은행, 생산센터 및 연구소의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미래의 '빠른'경제체제이다. 가속적이고 역동적인 이 새로운 부의 생산기계(wealth-machine)야말로 경제발전의 원천이며 나아가 그 자체로서 권력의 원천이다. 그것과 단절되고 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느린 경제는 반응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계약과 투자를 빼앗겨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미래에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해외 납품업체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 속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시장에서 밀려나 가속화 효과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 7) 미래의 가족

20세기의 문명이 이상화하여 전세계의 지배적 가족형태로 보급한 것은 핵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혼, 별거 등의 가정적 파국이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독신자, 이혼독신자, 무자녀가정, 편부모가정, 동거가족, 동성애 가족, Step family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가내근무전자체제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가족의 부부들은 함께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져 더욱 친밀해지고, 직장일이나 가사를 서로 돕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이로인해, 배우자 선택시 이전과는 달리 사랑 이외에도 두뇌, 성실성, 책임감 등 직업과 관련된 덕목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가내전자근무체제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의 아이들과는 다른 성장과정을 체험할 것이며, 일정한 연령이 되면 아이들 자신도 적당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가정의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동년배에 쉽게 영향력을 받지 않고, 소비지향을 삼가하며, 향락에 스스로 휘말리지 않는 인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교육도 변화되어 교육은 노동과 더욱 연관을 맺게 될 것이며, 전생애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가내근무 가정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 '전자확대가족(Electronic expended family)'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이 본 미래가정의 변화요인이 될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간으로 부터의 해방

자유근무시간제, 파트타임 근무제, 야간근무제의 결합은 많은 사람들이 9시-5시근무제(또는 어떤 고정 스케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즉, 시간 그 자체가 탈대중화 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24시간 밤낮없이 움직이는 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탈표준화 정신

20세기의 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규범은 가치, 중량, 거리, 크기, 시간, 통화로부터 생산품, 가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의 표준화를 촉진시켰다. 그

러나 오늘날 최첨기술들은 생산품과 서비스의 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중매체가 다양한 그룹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대량생산 체제로 부터의 이탈은 선택 즉, 다양한 생활양식과 고도로 개성화된 퍼스널리티를 가능케 하고 있다.

#### (3) 달라지는 소비윤리

생산소비자 윤리는 시장윤리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전문가보다는 다재다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어 일부시간은 노동자로 일하고 일부시간은 생산소비자로 일하게 되면 이들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병행하면서 육체노동과 두뇌노동의 보완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자 윤리는 과거에 경멸당해 온 육체노동을 다시 존중받게 만들 것이다.

여성의 사회노동, 남성의 가사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성과 관계없이 생산소비자 생활양식이 보급됨에 따라 '남성적 태도'와 '여성적 태도'의 조화를 통해 건전하게 사회를 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 Ⅲ. 2000년대를 바라보는 가정학

### 1) 가정학과 가족

미래의 가족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가정학 분야의 노력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어떤 종류의 가족 체계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목표의 문제이다.

#### (1) 가족원의 역할변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화, 기타 여러면의 이유로 가정 밖에서 직장을 갖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 할 것이다. 이러므로서 현대의 많은 여성은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지만 반면에 가정과 직장의 양면을 담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갈등도 많아 졌다.

이와같이 여성의 생활이 바뀌어짐에 따라 그녀와 같이 생활하는 남성의 생활방식도 서서히 바뀌어질 수 밖에 없어졌다. 남성들의 역할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여성과 함께 나누게 됨에 따라 가정생활

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육체적 생존의 유지를 위해서보다는 애정 추구를 위한 가정생활을 더욱 원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은 가정학에 흥미를 갖는 사람이 많아져 가정학 연구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숙이나 자유면에서 더 일찍 어른을 따라가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모의 애정적인 교육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진다.

#### (2) 가정과 사회와의 상호의존성의 증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독립적인 책임은 범위가 좁혀지고 개인의 다른사람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가정생활의 물질적 기술적인 면의 사회화로 인한 가사노동의 단순화에 반하여 자녀 양육면에 중점을 두게 되지만 어린이의 양육을 위해서 과거에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맡았으나 이제는 소아과의사, 아동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가정학자 등이 모두 양육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사회시설의 확대, 즉 의사전달과정에 있어서의 Radio, TV, 기타 다른 매체의 의한 전파등의 도움으로 상호의존성의 정도는 매우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과 사회와의 상호의존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가정생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던 주부의 역할이 기업체나 사회시설에 많이 옮겨져 반영되고 있다.

#### (3) 미래의 가정학 Program

가정학 Program은 가족의 기능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가정학 Program은 가정생활에 미치는 사회정책 뿐 아니라 산업계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학 교육에서 가정학 Program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 2가지 주요부분에 걸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commendation 1—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학생에게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라. 즉,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공해주는 가정생활과 가족체계의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인 면을 역사적으로 또한 현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라.

과거의 가족과 또한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역할, 구조 등이 변화하였고 사회와의 상호의존도도 증가한 현대의 가족을 모두 알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

초로 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가족의 문제를 탐구, 설명하여 가족이 미래에 대비하도록 한다.

#### **Recommendation 2—Family Environment and Related System**

가족학을 생태학적으로 연구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가정학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라.

가정학은 과학적 원리를 가정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부터 발전해 왔다. 전체 환경(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과 그것이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가정의 영향, 가족구조, 가정생활 Style, 소비 Pattern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가정을 다른 사회체제와 상호관련된 Ecosystem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2) 중요시되는 창의력 개발교육

현재 세계적으로 교육제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어 한국, 미국, 일본 및 기타의 개발국가에서는 1985년에서 시작하여 격변하는 사회와 대응한 기존 교육제도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즉, 산업주의에서 은 확일주의에서 개성 제일의 교육으로, 또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력 개발교육으로 변경하여 왔다.

##### (1) 새로운 교과목 속출

1913년 전후의 가정학 교과목을 보면 미학, 역사, 고고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위생학,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이 있으며 10년 후에 가족관계, 육아 등이 추가되어 왔다. 근래 1982년의 미국의 국립통계에서 발표한 세계가정학의 내용은 약 13개의 Curriculum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일반가정학, 산업가정학(Business Home Economics), 가족과 지역봉사, 가족소비자와 자원관리, 식품과 인체영양학, Home Communication, 가정학교육, 인간 환경학과 주거, 개인과 가족의 발전, Institutional Management, 국제가정학, 직물과 의복 등이다. 21세기의 가정학의 교과목에는, 우주환경 가정학(또는 무중력의 생활과학), 해저상태의 가정학, 가정기기공학, 가사용로봇트관리, 의장공학, 인체건강관리학 및 문화 생태비교학 등 환경과 신소재 개발에서 오는 새로운 교과목이 추가될 것이다. 21세기의 가정학의 교과목은 Global Academic Program에서 Universal Academic Program으로 진전될 것이

다.

#### (2) Full Continuum(전체연결)의 교수법

21세기의 가정학의 교수법은 현재와 같이 강의, 실험, 혹은 실습으로 구성되지만 Team teaching이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학습흥미와 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강의시간의 구성을 전공 학자들의 협조와 Supervisor까지 동원되어 수업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원화한다. 이미 Harvard대학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영양과 질병의 시간은 3시간 3학점을 3인 교수가 한 Team이 되어 교수하고 있다. 즉 각 질병의 전문의가 사례를 제시하고 영양학 교수는 최신이론을 강의하고 끝으로 영양사가 식이요법에 관한 식단구성과 실제 문제를 토의한다. 또 인재 Pool을 동원하지 않아도 각종의 교육기재(Video, TV, Slide등)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감나는 현지취재정보, 평가 등에 의해 교재를 통합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내의 교수들이 서로, 자원 Pool이 되어 상호 협조하므로 21세기의 교수법은 Full Continuum(전체연결) 혹은 Sub-continuum으로 성립될 것이다.

#### Recommendation - Programs for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우수한 학부생,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Program을 제공하라.

가정학의 미래발전과 연구발전을 위한 똑똑하고 유능하며, 야망있는 젊은이들이 미래 가정학계의 Leader가 되어야 하므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개발시키도록 할 수 있는 가정학 Program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관심을 포함한 연구 Program개발이 필요하며, Program의 내용과 질에 따라 학생의 입학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

#### Recommendation - Programs for Nontraditional Students

성인학생, part-time학생, 소수인종 학생, 남학생 등을 위한 Program을 개발하라.

가족관계, 아동발달, 식품학 같은 특정과목에는 남학생의 수가 많아지고,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2000년경에는 Part-time학생, 노인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 Service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교류학생의 수도 증가하므로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론과 실재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수인종(특히 흑인과 라틴아메리카계)학생도 증가하게 되므로 그들의 문화와 가치에 따른 다양한 필요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Recommendation - Continuing Education

Program개발시 평생교육을 우선으로 해라.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학습의 개념이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육기회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평생교육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직업을 바꾸기 원하는 장년층, 신입사원, 학교의 정규 Program을 이용할 수 없는 소수인종과 Part-time학생들을 위한 교육 Service가 필요하다. 가정과에서는 청강제도, Extension Service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는 성인학생을 위한 융통성있는 계획, 다양한 학습장소 이용(집에서 독학, 직장, 사회기관 이용), 특별 입학제도(노인, 소수인종을 위한), 교육매체로서 대중매체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3) 앞으로의 연구방향

현재의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거의 모든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정학의 연구방법은 단독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학은 기초적으로 차연, 사회 및 인문과학적인 방면에서 통합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학의 연구는 단순한 실험실습 뿐만 아니라 실천과학적인 면으로 연구하여 생활하는 입장에서 행정 및 기업가에 대하여 의미있는 제언을 하는 것이 가정학 연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 (1)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이제까지의 자연과학의 연구는 수직 Pattern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학문의 세분화와 지식의 심도의 발전은 전공학문의 Specialist을 만들어 왔다. 한 예를 영양학에서 들면 비만자에 관한 연구는 한단계의 연구가 끝나면 또 다음단계에 깊이를 가해 계속 연구한다. 그러나 앞으로 영양학자는 타방면의 전공자들과 합동하여 비만증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더욱 넓게 연구할 수 있다. 즉 식품과 영양의 연구자

는 식당에서 식단내용 점수자, 체중제한 식사와 예산, 가족관계자, 아동심리학자, 비만의복, 세포화학자 및 해부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하나의 대상을 집중연구하는 통합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21세기의 가정학의 연구는 수직적으로 전문화된 연구로부터 복합요인에 대한 수평적인 통합연구(Integrated Research)가 동시에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 (2) 새로운 기기이용연구

현재 전자 정보시대의 가정학의 각 영역의 연구에서 Computer의 이용과 그의 효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Computer는 거의 번역할 수도 있고, 관리자에게 전문가 수준의 자문에 응할 수도 있고, 또 충성을 다하는 능력있는 연구 보조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닥쳐오는 사회혁명의 흐름은 너무나 큰 힘으로 밀려오므로, 이 흐름에 저항할 수는 없으나 Computer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21세기에 개발되는 각종 기기는 우리들의 연구에 좋은 보조자가 되도록 충분히 마스터 할 것이 필요하다.

#### (3) 독자적인 사례연구 지급

가정학 실천과목으로서 연구면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독자적 사례개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 연구는 각 교과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여 학문의 원리를 산 지식으로 활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 Computer이용과 금후의 가정학연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New-media시대는 어쩔수 없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만난 가정학연구자로서는 그것에 그냥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에 추계학(推計學)을 시작한 통계학적 방법이 도입된 이래, 통계학적 수법을 쓰지 않으면 연구논문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존중된 시대가 있었고, 많은 연구자는 통계학에 친숙하게 되었다. Computer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이다. Computer를 과신하고 Computer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Computer를 잘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학분야의 문헌의 Data-base를 정비해야한다. 개인개인이 각자의 전문영역에 관하여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학회에서 가정학 전 영역을 망라한 규모로 만들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다. 가정학연구는 자칫하면 좁은 전문분야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쉽고 통합적인 시야를 잃어버린다는 반성이 때때로 일고 있지만 그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또 더 넓은 학문적 연구를 권하는 의미로서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말하였듯이, 우선 학회지 게재논문에 Key-word를 붙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Softusre를 개발해야한다. 이미 금저출납장부라던가, 영양가계산 등의 Software가 시판되고 있다. 기업이나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반가계용은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가계에 Computer가 들어오고 특히 주부가 쓰게 된다면 가정경영, 가정관리, 생활설계 관계의 Software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가정학의 Sense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쓰기 좋고, 유용한 Program을 만드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가정학자가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각, 촉각, 시각 등 인간의 오감 슴미레르 하고 맛, 촉감, 색상 등을 계측,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해야한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보다 인간의 기호나 품설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物'이 범람하는 사회에 있어서 좋은 제품설계를 위해 뜻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Computer내지는 New-media의 가정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메리카에서는 Computer widow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남편이 Computer에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 Computer game에 열중하는 어린이 문제도 더 심각하다. 또 이러한 시대에 익숙지 못하고 뒤지는 노인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가족관계, 가정교육, 가족의 건강이라는 면에서 취급해야할 연구과제도 이미 대두되어 왔다.

본격적 New-media시대는 피해서 지나갈 수 없이 목전에 다가왔다. 가정학자로는 적극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건강, 안전,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켜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4) 지구촌 단위의 지역봉사

가정학도의 사회 참여의 증대한 과제로서 가정학의 지역사회 Program의 적극적인 지도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나타나면 여기서 밀려오는 새로운 일의 창출효과 또는 개선된 생활수준, 작업조건 그리고 전체로서 향상된 인간적 생활 등의 사회적 여파가 명백하여 진다. 또 동시에 사회의 공업화는 많은 저소득층을 가진 다양한 지역사회를 생성하며 가정학은 가난한 도시인을 위한 봉사연구 Program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학의 지역봉사는 경제조정, 에너지 선택, 영양개선, 보건관리, 실내장식 등 넓은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21세기를 향하여 더욱 개성화되어 가는 사회의 변천은 생활의 각 층 각 영역에서 자문가로서의 가정학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사조의 변동과 새로운 취업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사회에서 정보창조, 분배에 근거를 둔 사회로 이양되며 수많은 가정학도들이 정보자료의 창조와 과정 및 분배를 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2) 인간의 농경시대는 자연과 일치하였고, 산업 시대는 조립된 자연과 일치하였고, 정보시대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 기술과 인간의 수용능력이 고도로 조화된 사회의 반응은 새로운 Program, 조직, Agency, 그리고 자문봉사의 창조에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Community Service를 위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생하게 될 것이다.

(3) 국가경제에서 보다 세계 경제단위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제적 학술교환, 여행건축, 문화교류 등이 가일층 광범위하게 확산, 보편화 되어갈 것이다.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과정에서도 국제화에 필요한 언어 및 의식교육이 강화되어 사회를 점차 더욱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학도의 국제적 취업도 전공 영역에 따라 새로운 제의와 요구를 받을 것이며, 21세기를 향하여 더욱 다양화되고 많아질 것이다. 또한 고유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민족문화를 더욱 앙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가정학의 학구적 공헌도 더욱 커질 것이다.

가정학의 교도사업은 더욱 적극화될 것이며 Extention Program의 교과과정의 개발과 Outreach Program의 강화도 가정학도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사회봉사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 IV. 가정학 본질의 내실을 위한 권장

##### 1) 가정학의 전문성과 통합성에 대한 창조력 양성 필요

가정학 각 분야의 연구의 진보에 따라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공이 독립 소외된 분야로의 유지가 아니고 학계간에 또 동일 전공간의 유기적인 상호연간으로 학문은 성취되는 것이며, 가정학분야의 분기된 전공은 다시 가정학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통합정리되어야 한다. 즉 전문의 틀에만 있지않고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대응성을 가진 교육이 바람직하다. 가정학 출신자가 자기의 전문성을 주장하려면 우선 기존의 전문적과 협력하여, 새로운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창조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학부생의 가정학본질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

학부 Program을 통하여 지도력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도력 Program은 학생들이 이미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고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도력 개념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도력은 연구의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학부학생들의 지도력개발은 가정학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가정학 연구의 개척자로서의 사명감의 간한 인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양성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그들 주위의 변화에 대한 인식 뿐만아니라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그리고 지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부 학습에서 상호작용, 학생활동의 봉사와 Communication Skill, 현재 진행되는 연구에 참여, Professional development의 특수훈련 등이 필요하다.

##### 3) 산학협동의 필요

산학 협동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현실(실제)과 이론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가정학 교육자는 직접 산업계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얻은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고, 기업가들은 대학



자문위원회나 초청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Program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2) 지식폭발과 과학기술의 그속한 발달로 산업계, 교육계 모두 새로운 지식을 근로자, 소비자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생겼다. 현직교육, 평생교육이 급속히 확대되어야 한다.

(3) 산업계 : 과학기술을 창조적,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관심영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현존전학 실습을 유도하여야 한다.

교육계 : 대학원 연구 Program개발, 능력있는 연구원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과 산업계의 연결(연계)은 본질적인 학문적 가치를 가지는 교육 Program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계의 관심과 관련있는 program은 성공적인 상호작용의 기본이 된다.

#### 4) 정부와의 연결

학교 가정학 program은 정부의 정책, 지원자금, 법규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에서 법률상 강조하는 것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도 변화하며, 연구와 Extention service를 위한 자금지원 및 교사교육, 가정관리 program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신청 수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학(가정학자)이 정부의 정책, 법규 등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여야 한다. Extention Service를 통해 정책개선, 법률시행 효과의 증대도 필요로 하며 법률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정책,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정부에 대한 가정학의 가장 큰 공로는 시민을 교육시킨다는 것이다.(국민학교 과정에서) 가정학자는 국민들에게 개인, 가정, 자원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시의 기준과 관점을 가르치고, 국가의 정책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학 교육자들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정책에 관한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결 언

역사는 이미 새 시대를 함성하는 과정에 임하고 있다. 가정학은 미래지향적 학문으로 새로운 창의

력·개발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것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간 공동체의 시야에서 인간 본연의 질(質)의 확보에 항상 선구자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다원화와 학제간의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우리 형편에 맞도록 독창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되어 민족문화의 조화속에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도록 가정학의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대의 가정학의 재편성은 생활문화, 생활과학, 그리고 생활미학의 통합적인 견지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가정학의 전공분야는 가정학으로의 본질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중심축을 가진 교과목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학의 교육, 연구 및 봉사의 각내용은 단기계획보다 긴 안목에서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수의 개념에 앞서 보다 인도적인 관찰능력으로 통합적인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0년대의 가정학은 남녀 공동으로 변동하는 생활리듬과 생명주기의 변동에서 오는 제요인을 분석 검토하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값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 발전하는 기술혁명도 궁극적으로는 인류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끌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 参 考 文 献

1. Bargeso, S.L., Home-Economics and the Third Wave, J. Home Economics, Vol. 2 Fall 10-13, 1983.
2. Brown, M., Home Economics: Proud Past-Promising Future, AHEA Commemorative Lecture, J. Home Economics, Winter 48-54, 1984.
3. Choi, E.S., K.Y. Lee and C.S. Shim, The History of Korean Home Economics, Yosei Univ. Press, 1975.
4. East, M.,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Allyn and Bacon, Inc., 1980.
5. Fonosch, G., Looking Back: A Home Economics in 1995, J. Home Economics, Fall 27-30, 1980.
6. Henderson, C., Exploring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J. Home Economics, p. 2-23-26, 1980.

7. Home Economics-New Directions : A Statement of Philosophy and Objectives, Washington, D. C. : Am. Home Economics Assoc., p. 4, 1959.
8. Lake Placid Conference on Home Economics. Proceedings of Conferences 1 to 10, 1899-1908. Washington, D.C. : Home Economic Association.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Conference, pp. 70-71, 1902.
9. Lippeatt, S.F., and H.I. Brown. Focus and Promise of Home Economics,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1.
10. Lee, K.Y., Future Trend of Korean Home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 1984.
11. Management of Rural Changes in Korea, The Saemaul Undong, Seoul Nat. Univ., Press, 1981.
12. Moon, S.J., and K.Y. Le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for Korean Home Economics, J. Korean Home Economics, 22 : 1-18, 1984.
- \*13. Rhee, U., H. Kahing, A Conceptual Study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in Higher Education, J. Korean Home Economics, 21 : No. 3, 1983.
14. Vincenti, V.B.,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81.
15. Yoon, B. and K. Kim, A Review of Vincenti's History of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J. Korean Home Economics, Vol. 21, No. 3, 1983.
16. 가정학장래구상 일본가정학회편, 광모판, 1984.
17. 이기열,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pp. 155-159, 1980.
18.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창립 20주년 발표지, 1989.
19. 엘빈 트플러,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1.